



2015년 1월 27일

투자전략 Daily

자산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자전략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량분석 | 안 혁 ☎ 3276-6272
 파생/ETF | 강송철 ☎ 3276-6181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스몰캡 | 정훈석 ☎ 3276-6232



• 파생/ETF 전략

중국 ADR, MSCI 편입. 한국에도 영향

• 이머징마켓 동향

경기둔화, 환율불안에 주요 이머징증시 하락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뷰웍스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엔씨소프트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 분석

유료방송, 휴대폰, 비에이치, 영원무역,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LG유플러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9(월)	1/20(화)	1/21(수)	1/22(목)	1/23(금)	1/26(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02.62	1,918.31	1,921.23	1,920.82	1,936.09	1,935.68
	등락폭	14.49	15.69	2.92	-0.41	15.27	-0.41
	등락종목	상승(상한)	437(5)	465(10)	385(7)	391(7)	460(7)
		하락(하한)	343(1)	344(0)	416(0)	393(0)	331(2)
	ADR	94.33	99.44	96.03	94.87	96.17	93.68
	이격도	10 일	99.86	100.50	100.45	100.35	101.08
		20 일	99.24	100.01	100.18	100.22	101.02
	투자심리	50	60	6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281	281	301	343	363	327
	거래대금 (십억 원)	3,583	3,637	4,401	4,598	4,596	3,900
코스닥	코스닥지수	577.94	582.27	584.34	578.42	589.31	590.34
	등락폭	0.53	4.33	2.07	-5.92	10.89	1.03
	등락종목	상승(상한)	437(14)	465(13)	385(19)	391(13)	637(22)
		하락(하한)	343(2)	344(2)	416(1)	393(2)	337(0)
	ADR	109.33	115.46	110.95	107.65	112.74	110.94
	이격도	10 일	101.10	101.45	101.40	100.16	101.76
		20 일	103.95	104.21	104.13	102.69	104.12
	투자심리	50	60	6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441	486	538	647	500	520
	거래대금 (십억 원)	2,509	2,882	3,023	3,292	2,996	2,84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869.5	1,010.6	880.8	133.7	102.2	203.7	53.5	17.5	370.314
	매도	1,795.8	1,111.9	972.9	151.0	145.2	323.2	63.6	14.4	275.5
	순매수	73.7	-101.3	-92.1	-17.3	-43.0	-119.4	-10.1	3.0	94.8
	1월 누계	303.4	-712.0	-1,057.0	-734.1	32.7	-75.8	-231.3	43.4	-91.8
	15년 누계	303.4	-712.0	-1,057.0	-734.1	32.7	-75.8	-231.3	43.4	-91.8
코스닥	매수	2,566.6	125.2	157.0	34.6	22.3	51.8	6.8	3.6	37.8
	매도	2,526.9	150.0	162.1	41.0	15.7	57.4	10.5	4.1	33.5
	순매수	39.7	-24.8	-5.1	-6.4	6.6	-5.5	-3.7	-0.5	4.3
	1월 누계	-133.6	-89.1	417.2	11.0	111.5	138.8	1.6	11.7	142.7
	15년 누계	-133.6	-89.1	417.2	11.0	111.5	138.8	1.6	11.7	142.7

중국 ADR, MSCI 편입. 한국에도 영향

2015년 Target KOSPI	2,130pt
12MF PER	9.86배
12MF PBR	0.96배
Yield Gap	8.1%P

- ▶ MSCI, 알리바바, Baidu 등 미국 상장 중국기업들을 11월부터 지수 편입하겠다고 발표
- ▶ 한국에 영향 있는 이유는 EM 내 중국비중 확대, 한국비중 축소 때문
- ▶ 11월에 1.4~1.7조원 한국주식 매도유인. 특히 한국 인터넷기업도 부담요인 될 가능성

■ 중국 ADR, 11월에 MSCI 지수편입 결정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
11월부터 MSCI 지수 편입

MSCI가 “외국에 상장된 기업”을 Global Standard 지수에 편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6일의 일이다.

기존에는 외국에 상장된 기업(Non-Local listing)은 MSCI 지수 편입 대상이 아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알리바바인데, 즉 알리바바는 중국기업이지만, 상장은 미국에 되어있고, 법적으로는 케이만군도(CAYMAN ISLANDS) 국적의 기업이라는 복잡한 구조(?)였다.

이런 이유로 알리바바는 시총 200조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MSCI CHINA 지수에 편입이 안됐었고, 또한 여기에는 알리바바가 상장된 미국과 CHINA 지수에 포함된 중국주식들의 거래시간대(Time Zone)가 다르다는 점도 큰 이유로 작용했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금번에 여기 해당하는 케이스 중 사이즈가 큰 기업들을 지수에 편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림 1] MSCI, 해외(Overseas)에 상장된 중국기업 MSCI CHINA 지수에 편입 결정

[현재 MSCI China index]				[향후 MSCI China index]			
	기업명	상장국가	상장형태		기업명	상장국가	상장형태
현지기업	China Mobile	홍콩	주식	현지기업	China Mobile	홍콩	주식
	ICBC	홍콩	주식		ICBC	홍콩	주식
				해외기업	Alibaba	뉴욕	ADR
					Baidu	뉴욕	ADR
				MSCI China Index			

자료: MSCI, 한국투자증권

세부적으로는 자딘 메이슨(Jardine Matheson) 등 3개 종목이 MSCI 홍콩 지수에, 알리바바 등 17개 기업이 MSCI CHINA 지수에 각각 편입될 예정이다. 편입시점은 올해 11월 반기(Semi Annual) 리뷰 적용시점으로, 11월 마지막 거래일인 11월 30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중요한 것은 알리바바 등 17개 기업이 MSCI CHINA 지수에 편입된다는 점이다. MSCI CHINA 편입에 따라 해당 종목들은 MSCI EM 등 상위 regional 지수에 자동으로 편입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국의 비중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 EM 내 중국비중 증가. 한국, 대만 비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

알리바바 등 17개 미국 상장 중국기업 MSCI 편입 예상

MSCI가 발표한 EM 지수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은 아래와 같다. 모두 ADR 등의 형태로 미국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이며, 현재 MSCI CHINA 지수에 편입돼 있지 않지만→11월 이후 MSCI CHINA 지수에 편입되며→MSCI CHINA가 포함된 상위지수, 즉 MSCI EM, MSCI Asia ex Japan, MSCI ACWI 등에도 자동으로 편입된다.

〈표 1〉 MSCI CHINA에 편입 예상되는 미국 상장 중국기업

Name	국가 분류 (Country of Classification)	상장 국가 (Country of Listing)	법인 등록국가 (Country of Incorporation)	Listing Type	Full Market Cap (mil \$, 1/23)
ALIBABA GROUP HLDG ADS	CHINA	USA	CAYMAN ISLANDS	ADR	254,167
BAIDU SPON ADR	CHINA	USA	CAYMAN ISLANDS	ADR	81,835
JD.COM	CHINA	USA	CAYMAN ISLANDS	ADR	34,063
NETEASE COM ADR	CHINA	USA	CAYMAN ISLANDS	ADR	14,754
VIPSHOP HOLDINGS ADS	CHINA	USA	CAYMAN ISLANDS	ADR	12,936
QIHOO 360 TECH ADR	CHINA	USA	CAYMAN ISLANDS	ADR	7,625
CTRIIP COM INTL ADR	CHINA	USA	CAYMAN ISLANDS	ADR	6,484
58.COM ADR	CHINA	USA	CAYMAN ISLANDS	ADR	3,557
AUTOHOME ADR	CHINA	USA	CAYMAN ISLANDS	ADR	3,842
SOUFUN HOLDINGS ADR	CHINA	USA	CAYMAN ISLANDS	ADR	2,824
JUMEI INTERNATIONAL	CHINA	USA	CAYMAN ISLANDS	ADR	2,000
NEW ORIENTAL EDUCAT ADR	CHINA	USA	CAYMAN ISLANDS	ADR	2,951
BITAUTO HOLDINGS ADR	CHINA	USA	CAYMAN ISLANDS	ADR	2,782
YOUKU COM SPON ADR	CHINA	USA	CAYMAN ISLANDS	ADR	3,514
TAL EDUCATION GROUP ADR	CHINA	USA	CAYMAN ISLANDS	ADR	2,379
YY INC	CHINA	USA	CAYMAN ISLANDS	ADR	4,103
SINA CORP	CHINA	USA	CAYMAN ISLANDS	STOCK	2,464

자료: MSCI, Bloomberg

17개 종목들의 시가총액 합계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4400억\$에 달한다. 물론 지수에는 시가총액 전부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유동비율 개념의 시가총액(Foreign inclusion factor, FIF) 만큼만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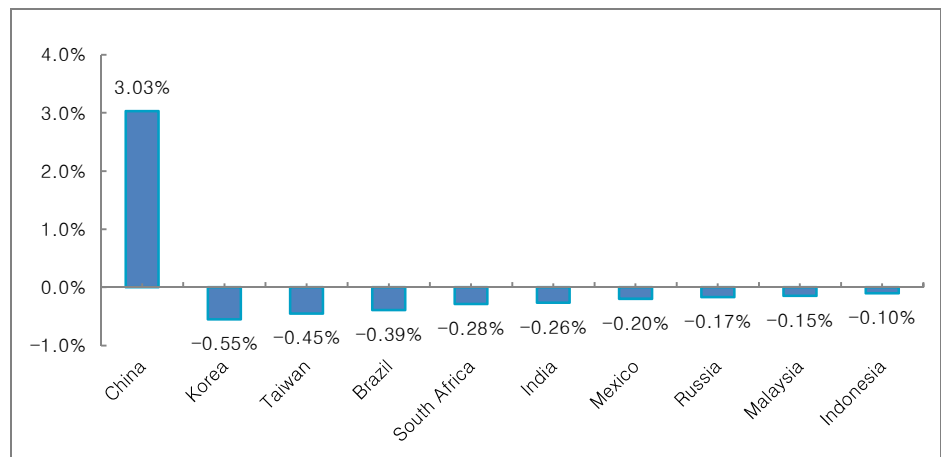
그렇다고 해도 영향은 매우 크다. MSCI EM의 경우 위 중국기업 17개 종목의 편입으로 인해 변화하는 지수 내 국가별 비중은 아래와 같다.

〈표 2〉 MSCI EM 지수 내 국가별 비중 변화 - 중국비중 증가, 여타국가 비중 감소

Country	현재*(2014/10/20일)		해외상장 중국기업 편입 후	
	구성종목 수	Weight	구성종목 수	Weight
China	140	19.7%	157	22.8%
Korea	105	14.6%	105	14.0%
Taiwan	101	12.0%	101	11.5%
Brazil	70	10.3%	70	9.9%
South Africa	51	7.5%	51	7.2%
India	65	6.9%	65	6.7%
Mexico	30	5.3%	30	5.1%
Russia	22	4.5%	22	4.3%
Malaysia	42	3.9%	42	3.7%
Indonesia	30	2.7%	30	2.6%
Thailand	32	2.4%	32	2.3%
Poland	24	1.7%	24	1.6%
Turkey	25	1.6%	25	1.6%
Chile	20	1.4%	20	1.4%
Philippines	20	1.2%	20	1.2%
Colombia	14	1.0%	14	0.9%
Qatar	11	0.9%	11	0.9%
U.A.E.	9	0.7%	9	0.7%
Greece	10	0.6%	10	0.6%
Peru	3	0.4%	3	0.4%
Egypt	4	0.2%	4	0.2%
Czech Republic	3	0.2%	3	0.2%
Hungary	3	0.2%	3	0.2%
MSCI EM Index	834	100.0%	851	100.0%

자료: MSCI 2014년 10월 20일 시점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그림 2] MSCI EM 지수 내 국가별 비중 변화 - 중국비중 증가, 여타국가 비중 감소



자료: MSCI, 한국투자증권

EM 내 중국 비중 증가,
한국, 대만 비중 감소

▶ MSCI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해외 상장된 17개 기업이 포함되면서 MSCI CHINA 지수 구성종목은 현재 140개에서 157개로 증가하고, EM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에서 22.8%로 증가한다.

▶ EM 내 한국 비중은 현재 14.6%에서 14.0%로 0.55% 가량 감소한다. 한국과 대만은 EM에서 중국 다음으로 비중이 큰 국가여서 상대적으로 비중 감소폭이 가장 크다.

위의 시뮬레이션은 2014년 10월 20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실제 편입이 예상되는 11월까지 해당 종목들의 주가 변동에 따라 비중증감 폭은 달라지게 된다. MSCI 편입 이슈로 11월까지 해당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비중 증감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 한국에는 1.4~1.7조원 매도 수요. 한국 인터넷기업에 부정적 영향

11월에 1.4~1.7조원
한국 매도수요

EM 내 비중 0.55% 감소는 수급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이다. 중국 A주의 5% 부분편입을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한국비중 감소분(0.3%)보다 크다.

11월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한국 매도수요는 1.4~1.7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MSCI EM 및 Asia ex Japan, ACWI(전세계) 지수를 패시브(passive)하게 추적하는 펀드의 매도수요만을 감안한 것이다. 규모가 가장 큰 MSCI EM 지수를 패시브하게 추적하는 펀드 규모는 2,400~2,500억\$ 수준으로 추정된다.

단 위의 매도수요 추정은 패시브펀드만을 감안한 것이다. MSCI 지수를 추적하는 액티브펀드 규모는 패시브펀드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액티브펀드의 경우 이미 해당 종목들을 매입하고 있을 수 있고, 지수 편입에 따라 해당종목들을 무조건 매입해야 할 필요도 적다. 하지만 일부라도 비슷한 리밸런싱에 나설 경우 한국에 대한 매도수요는 더 커질 수 있다.

한국 인터넷 기업에 부담

또한 알리바바, 바이두 등 새로 편입되는 중국 인터넷기업들은 모두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 관심이 높은 기업들이다. 여기에 MSCI 편입 이슈로 큰 폭의 유동성 유입이 예상된다. MSCI EM, Asia ex Japan, ACWI 등 규모가 큰 지수의 패시브 추적 펀드만 감안해도 평균적으로 시가총액의 4~5%에 해당하는 매입수요 유입이 추정된다. 거래대금과 비교하면 추정 매입수요는 평균적으로 5~6일치 거래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표 3).

이는 해당종목들의 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편입이 예상되는 17개 종목 대부분이 IT,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종목들에 대한 액티브펀드의 비중 확대가 나타날 경우 한국의 인터넷기업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슈로 판단된다.

〈표 3〉 미국 상장 중국기업, MSCI 편입에 따른 매입수요 추정

Name	MSCI CHINA 내 비중 추정	MSCI EM 내 비중 추정	MSCI 편입 따른 매입수요 추정* (패시브 펀드만, mil \$)	시가총액 대비 (%)	거래대금 대비 (days)
ALIBABA GROUP HLDG ADS	3.1%	0.7%	1,965	0.9%	0.8
BAIDU SPON ADR	8.3%	1.9%	5,277	6.9%	7.2
JD.COM	2.1%	0.5%	1,328	3.8%	8.3
NETEASE COM ADR	0.8%	0.2%	491	4.2%	11.8
VIPSHOP HOLDINGS ADS	0.6%	0.1%	385	3.5%	2.5
QIHOO 360 TECH ADR	0.8%	0.2%	503	5.9%	3.1
CTRIIP COM INTL ADR	0.8%	0.2%	497	6.9%	3.4
58.COM ADR	0.4%	0.1%	234	6.9%	7.1
AUTOHOME ADR	0.5%	0.1%	320	6.3%	9.4
SOUFUN HOLDINGS ADR	0.3%	0.1%	162	3.8%	3.2
JUMEI INTERNATIONAL	0.3%	0.1%	220	6.6%	13.6
NEW ORIENTAL EDUCAT ADR	0.3%	0.1%	197	5.9%	8.3
BITAUTO HOLDINGS ADR	0.2%	0.0%	100	3.1%	1.0
YOUKU COM SPON ADR	0.4%	0.1%	263	6.9%	7.0
TAL EDUCATION GROUP ADR	0.3%	0.1%	185	6.9%	12.2
YY INC	0.4%	0.1%	252	5.9%	2.4
SINA CORP	0.3%	0.1%	184	6.9%	4.2

주: 2014년 10/20일 시가총액 기준 추정. 매입수요는 MSCI EM, Asia ex Japan, ACWI를 패시브하게 추적하는 펀드의 매입수요를 추정한 것

자료: MSCI, 한국투자증권

〈표 4〉 MSCI 편입 예상 중국기업 업종 분류(GICS)

	Name	Sector	Industry	Industry Group
미국상장 중국기업	ALIBABA GROUP	IT	Internet Software & Services	Software & Services
	BAIDU	IT	Internet Software & Services	Software & Services
	NETEASE	IT	Internet Software & Services	Software & Services
	QIHOO 360	IT	Internet Software & Services	Software & Services
	58.COM	IT	Internet Software & Services	Software & Services
	AUTOHOME	IT	Internet Software & Services	Software & Services
	SOUFUN HOLDINGS	IT	Internet Software & Services	Software & Services
	BITAUTO HOLDINGS	IT	Internet Software & Services	Software & Services
	YOUKU COM	IT	Internet Software & Services	Software & Services
	YY INC	IT	Internet Software & Services	Software & Services
	SINA CORP	IT	Internet Software & Services	Software & Services
	JD.COM	Consumer Discretionary	Internet & Catalog Retail	Retailing
	VIPSHOP HOLDINGS	Consumer Discretionary	Internet & Catalog Retail	Retailing
	CTRIIP COM	Consumer Discretionary	Internet & Catalog Retail	Retailing
	JUMEI INTERNATIONAL	Consumer Discretionary	Internet & Catalog Retail	Retailing
	NEW ORIENTAL EDUCAT	Consumer Discretionary	Diversified Consumer Services	Consumer Services
	TAL EDUCATION GROUP	Consumer Discretionary	Diversified Consumer Services	Consumer Services
MSCI 한국 포함기업	네이버	IT	Internet Software & Services	Software & Services
	다음카카오	IT	Internet Software & Services	Software & Services

자료: Bloomberg

경기둔화, 환율불안에 주요 이머징증시 하락

- ▶ 상해종합지수는 0.9% 상승, 유가하락에 따른 수익성개선 기대로 장 막판 페트로차이나 급등
- ▶ 홍콩H지수는 0.2% 반락, 미국 FOMC를 앞둔 관망심리와 위안화가치 급락에 대한 우려 동반
- ▶ 자카르타종합지수는 경제구조개혁의 불확실성 우려로 최근 강세밸리 멈추고 1.2% 반락
- ▶ VN지수는 0.3% 하락,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연간 GDP성장률 둔화 우려가 주요 약세배경

상해종합지수 0.9% 상승
금융을 제외한 모든 업종
일제히 상승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0.9% 올라 3,383p로 마감했다. 오전장에는 약세구간에 머물렀으나 마감직전에 급등하며 닷새 동안 강세밸리를 이어갔다. 거래대금은 3,584억위안으로 직전거래일대비 600억위안이상 축소됐다. 특별한 호재가 없었으나 금융주를 제외한 업종들에 매수자금이 유입되며 지수강세를 이끌었다. 국가안보에 대한 정부지출이 늘어날 전망에 소프트웨어, 군수 등의 업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국제원유가격 약세에 따른 실적개선 기대로 페트로차이나 주가 막판에 급등했다. 연말 소비시즌 진입과 최근 소비주들의 상대적인 가격약세로 소비주에도 투자관심이 크게 쏠렸다. 한편 감독당국이 올해 보험산업의 실적호조를 예상하며 향후 5~10년간 가장 중요한 황금발 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은 하락했다. 업종별 등락흐름을 보면 소프트웨어(4.0%), 유통(3.5%), 음식료(3.4%), 미디어(2.7%), 하드웨어(2.5%), 통신서비스(2.4%), 내구소비재(2.4%), 소재(2.3%), 운송(2.3%) 등이 강세였던 반면에 증권(-0.9%), 보험(-0.8%), 은행(-0.6%) 등은 하락 마감했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0.2% 반락
비철금속, 증권, 부동산,
석유 등 대부분 종목 약세

홍콩H지수는 0.2% 하락해 12,228p로 마감했다. 약세로 출발후 장중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미국 FOMC에 대한 관망심리가 형성됐던 가운데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이 장중 한때 상한선인 2%까지 치솟으며 위안화 약세우려가 불거졌다. 비철금속, 증권, 부동산, 석유, 은행, 석탄, 자동차 등의 업종들이 하락했던 반면에 보험, 항공, 철도, 전력, 제약 관련주들은 상승 마감했다. 신용거래 연체계약 규모가 총 70억위안에 달한다는 루머가 돌면서 이날 중신증권(6030 HK) 주가는 2.1% 하락했다.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 1.2% 하락
금융, 소비재 등의 업종이
약세 주도

자카르타종합지수는 전일 연중고점을 경신한 뒤 1.2% 하락하며 엿새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반부패척결 캠페인이 정부의 경제개혁에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돼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금융, 경기소비재, 필수소비재 등의 업종들이 약세를 주도했던 반면에 에너지, 산업재, 통신 등은 상승세로 마감했다.

■ 베트남 시장

VN지수 0.3% 하락
금융, 에너지, 산업재 등
관련 업종 상승

VN지수는 0.3% 하락해 사흘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최근 국제 원유가격 급락이 경제성장률 둔화를 초래할 것에 대한 우려심리가 확산됐다. 금융, 산업재, 유틸리티 등의 업종들이 하락하며 지수약세를 이끌었다. 다만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비 0.9%에 그쳐 시장 컨센서스인 1.2%를 하회하며 투자심리를 일부 개선시켰다. 경기소비재, IT, 헬스케어, 소재 등의 업종들은 상승하며 지수낙폭을 제한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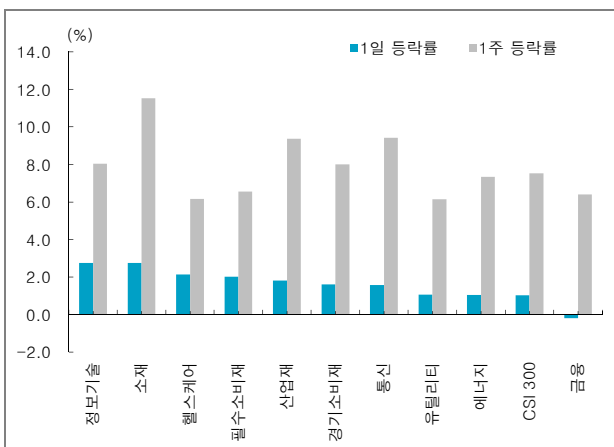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상해시 정부, 올해 처음으로 연간 GDP성장률 목표치 취소 2014년 A주 시가총액 37.1조위안으로 역대 최고, 그러나 GDP대비 비중은 58.3%에 불과 유로존의 양적완화 조치로 위안/유로 환율 처음으로 7.0을 하회
베트남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동월비 +0.94% (컨센서스 1.2%)
대만	12월 M1 통화공급량 증가율 6.90%(전월치 6.95%) 12월 M2 통화공급량 증가율 5.85%(전월치 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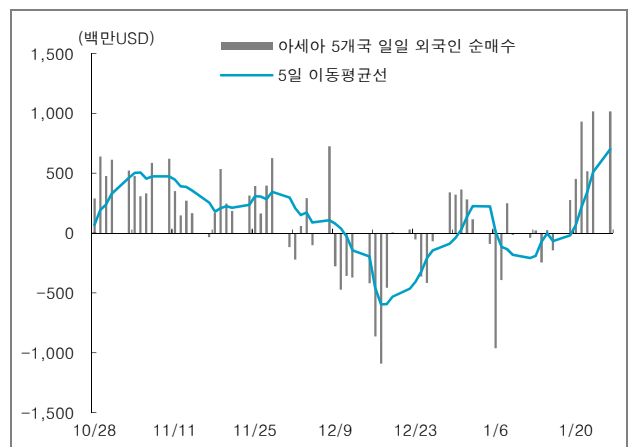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1/26(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3,383.18	0.94	8.56	4.59	4.59
홍콩 H	12,228.16	-0.26	6.56	2.03	2.03
중국 차스닥	1,739.79	2.50	6.73	18.21	18.21
인도 SENSEX	29,278.84	0.94	4.11	6.47	6.47
인도네시아 JCI	5,260.02	-1.20	2.09	0.63	0.63
태국 SET	1,596.44	-0.12	3.98	6.59	6.59
베트남 VN	580.64	-0.30	1.60	6.42	6.42
MSCI 이머징마켓	990.89	0.75	4.03	3.62	3.62

주: 26일 오후 6시 1분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약세를 보이며 혼조 마감

- 전날 유럽중앙은행(ECB)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 발표에 힘입어 크게 상승했던 미국 증시는 국제유가 하락 및 기업 실적 우려감에 혼조세로 마감했으나, 4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섬. 1,930P선을 밀돌며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종일 약세 흐름을 보였으나, 연기금과 개인의 매수세가 하락폭을 다소 줄이며 1,935P로 마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와 개인의 매수세가 팽팽히 맞선 끝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90P선에 안착하며 마감.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급진 좌파 성향 정당인 시리자 압승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습
- 종목별 움직임을 보면, 스위스 스포츠 브랜드 업체 '스콧 스포츠'의 지분 50.01%를 취득해 최대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에 영원무역이 11%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으며, 에스에이엠티 인수 추진을 위해 채권단과 협의중이라는 소식에 삼지전자와 에스에이엠티가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 신작 기대감 및 중국 모멘텀에 게임주가 연일 강세를 보였으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대표적인 요우커 관련주로 부각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임. 또한, 중국 화웨이사와 한국 SW기업 최초로 원격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알서포트가 급등했으며, 일부 경쟁업체 사업 철수 등에 힘입어 올해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에스24가 신고가를 경신. 반면, 자사주 전량을 처분한다는 소식에 플렉스컴이 급락했으며, 연일 신고가를 기록했던 SKC코오롱PI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5.2% 감소했다는 소식과 연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인해 몇새 만에 하락반전

종목/이슈	내 용
영원무역(111770) ▶52,600(+10.85%)	스위스 자전거 업체 인수 소식에 초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 스포츠 브랜드 업체 '스콧 스포츠'의 지분 375만1,250주(지분 50.1%)를 1,085억3,000만원에 취득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이는 자기자본 대비 12%에 해당하는 규모임 - '스콧 스포츠'는 자전거가 매출의 70% 이상이며 북미, 유럽 등 55개국에 진출해 스키폴, 모터사이클 등 고가 스포츠용품을 파는 업체로서 양사의 시너지 효과 기대
게임주	신작 흥행 및 중국 모멘텀이 부각되며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중국에서 알리바바 회장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지며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 및 신작 출시 및 흥행 기대감도 더해지며 강세 - 이스트소프트(047560), 드래곤플라이(030350, 이상 상한가), 엠게임(058630, +11.36%), 파티게임즈(194510, +10.91%), 조이스티(067000, +6.42%), 게임빌(063080, +4.43%) 등 강세
화장품주	요우커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에서의 성장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 - 한국콜마홀딩스(024720, +5.56%), 코스맥스(192820, +4.93%), 코스온(069110, +4.52%), 코스맥스비티아이(044820, +3.80%), 한국콜마(161890, +3.66%)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테크윙(089030) ▶10,450(+5.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하이닉스, 샌디스크, 마이크론 등으로 공급처를 확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신고가 경신
메디톡스(086900) ▶395,000(+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상형 제재인 신제품 '이노톡스'와 필러 '뉴라미스' 매출 증가와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에 지난 해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에 신고가 경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뷰웍스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뷰웍스 (100120)	32,950 (-4.9)	34,65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사업이자 성장동력인 FP-DR(디지털 X-Ray시스템에 장착되는 디텍터의 한 종류)의 고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Retrofit(기존 아날로그 X-Ray 시스템에 FP-DR을 장착해 디지털로 전환) 시장에서 경쟁력을 주목할 필요 치과용 X-Ray 디텍터와 적은 광량에서도 고해상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인 TDI(Time Delayed Inspection) 센서가 탑재된 산업용 카메라 출시에 따른 신제품 효과 예상
삼영이엔씨 (065570)	8,970 (-2.5)	9,20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해안전과 직결된 선박전자장비 전문업체로 국내 유일의 상장업체로, 대형 선박에만 적용됐던 법령규제 장벽이 중소형 선박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국내어선 감척으로 한동안 침체됐던 내수시장은 항해안전 관련 규제 강화, 마린나 활성화 등으로 회복/재성장할 수 있는 여건 형성 중장기적으로 e-내비게이션 도입, 기존장비의 디지털화에 따른 수혜 예상
영원무역 (111770)	52,600 (-3.7)	54,60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글라데시 등 노무비가 저렴한 지역에서의 설비증설로 성장성 및 경쟁력 제고 주요 바이어들의 오더 확대, 품목 다각화, 수직 계열화와 다양한 고객군 확보 등으로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설비증설 효과 본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Peer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와이지엔터 (122870)	50,400 (+11.1)	45,35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인 라인업 확대, 기존 아티스트 공연 증가, 해외사업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세 지속 예상 중국 인터넷 업체인 텐센트(Tencent)와 콘텐츠 제작 및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로 중국사업의 가시성 향상. 또한 2014년 11월 휘닉스홀딩스 및 코드코스메 지분 인수로 화장품 사업 본격화 예상
모두투어 (080160)	26,950 (+8.0)	24,95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점유율 개선과 업황 턴어라운드 그리고 신사업 실적 기여 등으로 실적 개선 예상 여행수요의 우상향 트렌드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2015년에는 세월호 사태 및 동남아 시위 등으로 주춤했던 여행 수요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 예상 인바운드 자회사(모두투어인터내셔널)의 이익 턴어라운드, 모두스테이(호텔 3개)의 이익 개선, 그리고 기타 자회사의 이익 개선 등을 연결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을 주목할 필요
파트론 (091700)	13,300 (+5.6)	12,60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사 고가 스마트폰의 전방카메라 화소수가 상향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사의 2015년 상반기 플래그쉽 모델에는 기존 2MP에서 5MP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됨 고마진 센서부문(온도, 적외선, 지문인식, 근접, 조도, 압력, 제스처, 가속도 등의 센서모듈 패키징)의 매출 증가가 안테나 부문의 제품믹스 악화를 상쇄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엔씨소프트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5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엔씨소프트 (036570)	189,500 (+5.0)	180,500 (1/2)	861	266	220	11,035	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 가운데 기존 게임의 ARPU 상승과 길드워2 확장팩 출시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세 지속 예상 - 리니지1의 수익성 높은 신규 아이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앤소울의 추가 구성상품 선택을 통한 ARPU 상승 예상 - 2015년에는 블레이드앤소울 TCG, 패션스트리트, 팜야 등 모바일 게임 다수 출시 예정 				
LG하우시스 (108670)	181,500 (+13.8)	159,500 (1/2)	3,137	163	123	12,279	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PVC 창호, 바닥재 등 건자재 건자재 매출 성장이 예상되며, 자동차, 가전관련 소재도 거래처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전망 - PVC, 가소제, MMA 등 화학제품 가격 하락으로 원재료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미국에 자동차 원단 공장 증설, B2C 건자재 확대(온라인 '지인물' 오픈 등) 등 다각적 투자를 통한 장기 성장동력 강화 				
LG생활건강 (051900)	598,000 (-3.2)	618,000 (1/2)	5,0834	600	427	25,640	2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에도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 매출호조와 방문판매 매출증가로 화장품 부문의 실적은 개선세 지속 예상 - 화장품 면세채널과 중국사업 정상화, 생활용품과 음료부문의 경쟁완화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주목할 필요 				
NAVER (035420)	771,000 (+5.5)	731,000 (1/2)	3,328	1,119	773	25,935	2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인 가입자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익 모델 다변화로 라인 매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서비스와 수익모델 도입이 가능하고 유행에 덜 민감한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라인은 여타 글로벌 SNS업체들 대비 상대적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 - 폐쇄형 SNS인 밴드(BAND)도 글로벌 가입자 증가와 모바일 게임 출시로 성장 기대 				
삼성생명 (032830)	116,000 (+0.9)	115,000 (1/2)	17,694	657	1,341	6,707	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효율화의 성과 가시화 예상 - 삼성자산운용이 연결대상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배주주 기준 연결순이익은 증가와 경합적인 투자이익을 개선도 가능할 전망 -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초과자본 이슈가 있는 계열사들의 배당정책 변화 등에 힘입어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 상존 				
SK하이닉스 (000660)	48,250 (+1.0)	47,750 (1/2)	19,340	6,100	5,180	7,120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모바일, 그래픽 등 D램 수요 확대에 D램 가격 안정세 지속 - 애플 및 OEM 수요, 스마트폰 신제품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15년에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예상 - 영업활동을 통한 순현금 창출능력을 감안할 때 자사주 취득 및 주주배당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 유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NAVER, LG생활건강, 삼성생명, 엔씨소프트, SK하이닉스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유료방송: 4Q14 Preview: 아직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

■ 4분기 실적 Preview: 부진한 실적 이어질 전망

4분기에도 국내 케이블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기업의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 산업 내 경쟁심화로 방송ARPU 하락과 마케팅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IPTV업체를 제외한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CJ헬로비전만이 가입자가 소폭 증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ARPU를 희생한 결과로 이익의 감소요인으로 분석된다. 케이블SO, 위성방송업체는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P(가격), Q(가입자), Q(비용) 모든 측면에서 부진하다는 판단이다.

■ 경쟁심화 전망 반영해 목표주가 하향 조정

가격경쟁 환경 속에서 유료방송 산업은 4분기에 실적부진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업황둔화 현상은 상반기 중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반영해 스카이라이프와 CJ헬로비전의 순이익추정치를 각각 18%, 13% 하향 조정해 목표주가를 각각 22,000원(기준: 26,000원/산출방식: 2015년 EPS에 목표PER 15배 적용), 12,500원(기준: 14,500원/산출방식: 2015F EBIDTA에 목표EV/EBITDA 5배 적용)으로 하향했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한다. 하반기부터의 점진적인 업황회복을 감안하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4분기 실적 기업별 업데이트: 스카이라이프, CJ헬로비전, 현대에이치씨엔

스카이라이프: 별도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566억원(+1% YoY, -2% QoQ), 226억원(+14% YoY, +194% QoQ)으로 추정된다(1월 28일 실적발표 예정). 영업이익은 전분기 및 전년 대비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1) 지난 3분기 115억원의 일회성 비용(NDS 소송 배상금) 반영 및 HD전환 마케팅비용 증가를 감안하면 전분기 대비 실질 이익 개선 효과는 미미했다는 판단이다. 2)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영업상황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사의 4분기 마케팅비용은 391억원으로 예상되지만, OTS가입자는 오히려 1,802명 순감했다. 전년 동기 마케팅 비용이 390억원, OTS가입자가 94,462명 순증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동사의 수익성 둔화는 4분기에도 지속됐다는 판단이다.

CJ헬로비전: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387억원(+12% YoY, +4% QoQ), 258억원(-20% YoY, +2% QoQ)으로 추정된다(2월 5일 실적발표 예정). 지난 3분기에 무료VoD 관련 일회성 비용이 25억원 발생했고, 4분기 MVNO사업의 적자규모 17억원(3분기 32억원 적자 vs. 4분기 15억원 적자추정) 감소에도 불구하고, 분기 영업이익 증가는 6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방송, 인터넷, VoIP 등 주력사업에서의 ARPU하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경쟁완화에 따른 ARPU반등 이전에는 수익성회복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

현대에이치씨엔: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47억원(-5% YoY, -4% QoQ), 131억원(+2% YoY, -19% QoQ)으로 추정된다(실적발표일 미정). 4분기 방송가입자는 1.1만명 감소, 방송ARPU도 8,130원(vs. 3분기 8,190원)으로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 경쟁업체 대비 수익성 방어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업황부진 심화로 이익성장 둔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쟁완화에 따른 ARPU반등과 신규사업 등 추가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주목해야 한다

하반기에 초점을 맞춘 투자전략을 추천한다. 상반기는 IPTV진영의 공격적인 영업정책으로 가격경쟁심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IPTV업체의 인터넷-방송결합률은 지난 12월 기준 67%(KT 72%, LG유플러스 65%, SK브로드밴드 59%) 수준으로 여전히 Q의 경쟁이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반기 산업 경쟁완화를 예상한다. 인터넷-방송결합률이 70% 중반에 도달해 IPTV진영의 가입자 경쟁 강도가 점진적으로 약화될 전망이다. 또한, 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리스크의 해소, 씨앤앰 매각 등 산업구조조정, 신규 홈쇼핑사업자 유입에 따른 홈쇼핑송출 수수료 추가 성장성도 하반기에 기대 가능한 긍정적인 이슈들이다. 특히, 우리는 산업 내 가입자 경쟁완화 이후 방송상품가격정상화로 산업전반의 ARPU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유료방송산업은 가입자, ARPU, 실적 등 모든 측면에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5년 1월 2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휴대폰 부품: 여전히 선택과 집중을 권고

■ 최근 휴대폰 부품주 rally의 원인이 되는 3가지 기대감

최근 휴대폰 부품주 rally의 원인이 되는 3가지 기대감들은 다음과 같다고 판단된다. 1) 예상보다 좋은 삼성전자 휴대폰의 4Q14 실적 분위기가 올해 1분기/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삼성전자는 1/29 4Q14 실적발표 예정), 2) 갤럭시S6향 일부 부품공급이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휴대폰 supply chain내 업체들의 실적이 1분기부터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3) 1분기에는 삼성전자의 A시리즈 판매가 본격화되고 또한 E시리즈의 제품출시가 기대되는데, 이것이 저가폰 판매에 활력을 불어넣어 관련 부품들의 오더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다.

■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욱 신중해야 되는 구간으로 판단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휴대폰 supply chain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되는 구간으로 판단된다. 즉, 1) 삼성전자 휴대폰의 4Q14 실적 호조는 예년대비 마케팅비용 지출이 적었던 점이 주요한 요인이었고, 반면 올해 상반기에는 갤럭시S6 및 새로운 Platform 모델들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이러한 마케팅비용은 증가할 전망이다, 2) 갤럭시S6향 부품들의 빠른 공급은 부품업체들의 단가인하압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전략으로 판단될 뿐, 갤럭시S6 관련부품들의 본격적인 납품개시는 예년과 비슷하게 3월초순일 전망이고, 3) A시리즈 및 E시리즈의 높은 출고가격을 감안하면 이들 라인업이 저가폰 판매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로 판단되기 때문이다(표1,2 참조).

■ 상반기 주요 포인트는 범용부품 공급업체 및 베트남 생산기지 확보 업체

당분간 휴대폰 supply chain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어 다음 2가지 포인트에 집중할 것을 권고한다. 1) 갤럭시S6 및 A/E시리즈의 스펙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범용부품을 대표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들과(표1/2/3 참조), 2) 삼성전자 베트남 제2공장의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물량 및 원가구조 개선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베트남 생산기지를 확보한 업체들이다(표4 참조). 카메라모듈 및 디스플레이/TSP용 FPCB의 범용부품을 납품하며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이미 확보한 대표적인 업체들인 파트론(091700, 매수/TP 15,500원) 및 비에이치(090460, 매수/TP 12,000원)가 이에 해당된다.

■ Top Pick은 Platform 전략상 최대 수혜업체인 파트론 및 비에이치

휴대폰 부품업체들 중에서는 고객사 Platform 전략상 최대 수혜업체들에게 주목할 것을 권고하며 여전히 Top Pick으로 파트론(091700, 매수/TP 15,500원) 및 비에이치(090460, 매수/TP 12,000원)를 유지한다. 1) 스마트폰 모델수가 줄어들고 모델당 물량이 늘어나는 Platform 전략에서는 위 업체들의 범용부품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전망이며, 2) 고객사의 단가인하압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했고, 3) 하이엔드폰 라인업(갤럭시S6, A/E시리즈) 및 저중가폰 라인업(Z1/J1)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1) 새로운 application향 신제품이 추가되거나, 2) 새로운 고객 확보가 가시화될 경우 추가적인 실적 upside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5년 1월 2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비에이치(090460)

매수(유지)

목표가: 12,000원(상향)

종가(1/23): 8,770원

고객사 Platform 전략의 최대 수혜 업체

■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를 12,000원으로 상향

비에이치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50% 상향한다(12MF EPS에 9.0배 적용). 상향 요인은 1) 고객사 Platform 전략에 따라 동사의 범용부품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2015년 EPS를 기존대비 35% 상향했고, 2) 1Q15부터는 해외 고객사향 부품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는 글로벌 peer들과 비교한 목표 multiple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동사는 고객사 Platform 전략의 최대 수혜 업체

동사는 고객사 Platform 전략의 최대 수혜 업체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1) 동사는 고객사의 상반기 Flagship모델용 디스플레이/TSP용 FPCB를 주력으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2) Platform 전략의 첫 번째 모델에서도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고객사의 단가인하압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이미 확보했고, Platform 전략에 적합한 동사의 범용부품들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2015년 국내 고객사들향 스마트폰용 FPCB 매출액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2,718억원으로 전망된다.

■ 해외 고객사향 부품공급 개시에 따른 매출처 다변화

동사는 1Q15부터 해외 고객사향 부품공급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매출처 다변화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1) 동사는 1Q15부터 중국/일본 고객사향 TSP용 FPCB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며, 2) 향후 디스플레이용 FPCB가 추가될 경우 실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upside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가 전망되는 부분도 긍정적이다. 2015년 해외 고객사들향 스마트폰용 FPCB 매출액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393억원으로 전망된다.

■ 4Q14 저점 이후 2015년에는 견조한 실적성장 전망

동사의 4Q14 매출액은 전분기대비 6% 증가한 777억원,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9% 감소한 39억원(OPM 5%)로 추정된다(3월초 실적발표 예정). 영업이익이 전분기대비 감소하는 요인은 국내 고객사들의 높은 계획대비 실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부진하여 연말 단가인하 압력이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동사는 4Q14를 저점으로 2015년에는 분기당 영업이익률이 6%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전년대비 견조한 실적성장이 전망된다. 2015년 매출액은 4,098억원(+28% YoY), 영업이익은 265억원(+51% YoY, OPM 6.5%)으로 전망되고 주가 상승여력은 37%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2A	230	25	14	966	28.1	32	12.4	7.7	2.4	21.5	-
2013A	379	31	22	1,524	57.8	53	7.8	4.8	1.9	27.7	-
2014F	321	18	11	777	(49.0)	40	10.2	5.2	1.1	11.8	-
2015F	410	27	19	1,331	71.4	49	6.6	4.3	1.1	17.1	-
2016F	459	32	24	1,676	25.9	55	5.2	3.7	0.9	18.1	-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5년 1월 2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영원무역(111770)

매수(유지)

목표가: 78,000원(유지)

종가(1/23): 47,450원

글로벌 최고 스포츠의류 OEM과 브랜드의 만남

■ 영원무역 Scott Sports 지분 50.01% 인수로 경영권 확보

영원무역은 Scott Sports 지분 30.01%를 1,085억원에 현금 인수할 것을 공시했다. Scott Sports는 스위스 업체로 자전거가 매출의 70% 이상이다. 또한 스키폴, 모터사이클 등 고가 스포츠용품 및 스포츠웨어 브랜드 업체이다. 현재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55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2014년 매출 5,640억원과 순이익 188억원을 시현했다. 영업이익과 EBITDA는 각각 약 300억원과 37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2013년 7월 영원무역이 460억원으로 20% 지분 인수 후 이번 30.01% 지분 확보를 통해 총 50.01%를 취득하면서 영원무역이 Scott Sports의 최대주주로 등극, 경영권을 확보했다. 영원무역과 Scott은 자전거 및 자전거의류 사업을 수년간 함께 해온 파트너 관계이며 이번 인수를 통해 Scott 브랜드 사업의 지역 확장 뿐 아니라 자전거 및 아웃도어, 유관 사업으로의 브랜드 사업 확장을 기대한다.

■ 인수 가격은 적정, 2016년 매출액, 영업이익, 지배주주순이익 34%, 10%, 5% 상향

이번 인수는 차입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나 영원무역은 2014년 말 순현금으로 추정되고 영원무역의 연간 EBITDA가 2,000억원 이상으로 자금 우려는 없다. 인수가 Scott Sports의 FY14 실적 기준 PER 19배, PBR 2.2배, PSR 0.6배이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FY14 평균 PER이 24배, PBR 3.8배, PSR 1.9배를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2분기부터 영원무역의 연결 실적으로 반영되는데, Scott 인수 효과를 반영한 결과 영원무역의 2015년 매출액, 영업이익, 지배주주순이익은 각각 30.6%, 8.8%, 4% 상향되고 온기로 반영되는 2016년 매출액, 영업이익, 지배주주순이익은 각각 34.4%, 10.4%, 5% 상향된다.

■ Scott 인수 긍정적, 1) 적절한 인수 가격, 2) 유관 사업 확대, 3) 성장 의지 재확인

우리는 크게 세가지 이유로 이번 인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선,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인수 가격의 적정성이다. 현재 Scott Sports의 실적은 유럽 소비 경기 부진이 반영되어 있다. 어려운 시점에 비싸지 않게 인수해 영원무역의 향후 실적과 자금 조달 우려 모두 미미하다. 두번째, 유관 사업으로의 확대와 시너지 기대라는 측면이다. 동사는 과거 신발 공장 인수, 메리노울 사업 M&A, 국내 노스페이스 리테일 사업 등 유관 사업으로 확대했는데, 고부가 아웃도어/스포츠의류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투자를 함으로써 신규 사업에서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면서 시너지를 창출했다. 세번째, 공격적인 성장 의지의 재확인이다. 동사의 의류 OEM maintenance Capex는 200억원 내외에 불과하다. 그러나 동사는 2012년부터 공장 및 기계 설비 투자, 지분 투자 확대 등으로 연 2,000억원 내외의 Capex 및 지분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본격화된 의류 OEM에서의 외형 성장으로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향후 의류 OEM과 브랜드 사업에서의 유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 중장기 글로벌 경쟁력 확보 과정, 최근 주가 낙폭까지 감안 시 주가 상승 여력 충분

영원무역을 업종 내 Top pick으로 유지하고 목표주가 78,000원을 유지한다(12MF PER 20배). 동사는 진입 장벽이 높으면서 성장하는 고부가 스포츠의류 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와 OEM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다. 차익 실현과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주가는 단기 비수기와 상반기 기고 영향으로 인한 실적 우려로 추가 하락해 고점에 서 30% 이상 급락, 12MF PER은 12.2배에 불과하다. 과도했던 주가 낙폭에 향후 동사의 전망까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우리는 동사가 향후 경쟁력 있는 의류 OEM, 스포츠브랜드에 적용되는 PER 20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2A	1,059	186	119	2,909	1.4	217	11.3	5.9	2.1	20.0	0.6
2013A	1,108	161	111	2,513	(13.6)	190	16.9	9.4	2.2	14.8	0.5
2014F	1,253	182	126	2,848	13.3	220	18.6	10.4	2.4	13.9	0.4
2015F	1,876	245	169	3,811	33.8	293	12.5	7.3	1.9	16.1	0.5
2016F	2,238	303	207	4,679	22.8	357	10.1	5.9	1.6	16.9	0.5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5년 1월 2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건설(000720)

매수(유지)

목표가: 60,000원(상향)

종가(1/23): 41,200원

불황에도 저력은 인정해야

■ What's new : 예상에 부합

영업이익은 2,610억원으로 당사 예상에 부합했다. 순이익이 당사 예상에 못 미친 이유는 연간 반영된 과징금 549억원이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해 법인세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 Positives : 4년만에 별도 영업현금흐름 + 전환, 악성현장 종료

긍정적 포인트는 두 가지다. ① 그간 우리가 가장 부정적으로 보았던 별도 영업현금 흐름이 4년만에 (+)전환했다. 매출채권은 전년대비 1천억원 감소한 4.3조원으로 추정되며 연결 기준 2,290억원의 순현금 기조로 돌아섰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순현금 9천억원 효과가 크지만 별도 순차입금도 6,500억원으로 3분기 대비 3천억원 감소했다. ② 악성현장이 종료됐다. 지난 2년간 원가율을 훼손하던 대표 현장은 쿠웨이트 'KOC 파이프라인'과 UAE 'Borouge'다. UAE는 2014년 상반기 완공됐고 쿠웨이트 현장은 준공 검사 단계로 인력 철수 중이다. 3~4분기 쿠웨이트에서 각 6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반영했다. 두 현장에서만 2014년 2천억원의 비용을 반영해 본사 원가율 0.9%p의 상승요인이었다. 단순화시키면 2015년에는 그만큼 원가 개선 요인이 발생한다. 쿠웨이트 현장은 당초 준공이 무려 20개월, UAE는 5개월 지연 끝에 완공됐다. 그만큼 악성현장의 준공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EPC업체의 실적 개선의 최우선 조건은 악성현장의 준공뿐이다.

■ Negatives : 수주잔고의 30%는 위험지역 비중, 이를 배제시 잔고/매출 배수는 2.9배

원가율 개선은 확실하나 top line 성장 우려는 잔존한다. 베네수엘라/이라크/우즈베크/유럽 등 매출 진행이 어려운 지역의 잔고는 134억달러로 본사 수주잔고의 30%, 해외 잔고의 45%에 해당한다. 베네수엘라 현장은 7.5억달러의 공사대금을 선취했고 2억달러의 원가를 투입한 상황이다. 2015년에도 수취한 대금 한도에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CIS와 중남미 지역의 매출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우리는 해당 지역 잔고의 5.0%만 매출로 인식될 것으로 가정했으며 이는 본사 매출의 6.0%에 해당한다. 본사 잔고/매출 배수는 4.1배지만 위험지역 잔고 배제한 본사 잔고/매출 배수는 2.9배로 여전히 타사대비 높다.

■ 결론 : 약점 감안해도 PER 8.3배에서는 사야 할 시점, 차선호주 제시

건설업 공통의 문제지만 위험지역 exposure와 수주 성장 한계의 약점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10월 이후 주가는 16% 하락해 리스크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악성현장 종료와 1천세대의 미분양 처리계획(관련비용 300억원을 4분기에 반영)에 따라 전사 원가율은 0.4%p 개선될 전망이다. 원가구조가 4년만에 개선된다는 점이 저가수주 후유증에 시달리는 타사와 차별점으로, 대안 건설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해외 발주 시황은 2015년 더욱 부정적으로 전망하나, 기업 펀더멘털 감안시 PER 8.3배는 사야 하는 밸류에이션으로 판단한다.

	4Q14P				증감률		2015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5,050	5,134	1.7	5,101	20.5	26.1	18,913	19,452
영업이익	279	261	(6.5)	281	13.1	25.8	1,062	1,148
영업이익률(%)	5.5	5.1	-0.4pt	5.5	-0.3pt	0.pt	5.6	5.9
세전이익	254	232	(8.5)	254	17.0	52.6	991	1,077
순이익	150	113	(24.5)	183	26.8	13.7	552	612

*상기 보고서는 2015년 1월 25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모비스(012330)

매수(유지)

목표가: 360,000원(유지)

종가(1/23): 255,000원

감출 수 없는 내구성

■ What's new: 최근 높아진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

현대모비스의 4분기 매출액은 9조 8,424억원으로(+15.8% QoQ, +7% YoY) 우리 전망치와 컨센서스를 각각 0.7%, 2% 상회했다. 영업이익은 8,807억원으로(+21.7% QoQ, +1.1% YoY, OPM 8.9%) 추정치와 컨센서스보다 각각 0.3%, 2.5% 높았다. 순이익은 8,231억원으로(+7% QoQ, -9.8% YoY) 컨센데비 12.9% 부진했다. 매출액은 모듈 부문이 완성차 생산 호조로 견조했다(+8% YoY). 영업이익은 금융부문 손실이 예상보다 컸으나 AS부문 수익성이 22.3%로 반등하면서(+2.1%p QoQ, -0.4%p YoY) 증가했다. 순이익은 현대차의 이익감소로 예상보다 낮았다.

■ Positives: 튼튼한 수익성 과시

모비스는 2014년 내내 분기마다 수익성이 개선됐다(1분기부터 8.1%, 8.3%, 8.5%, 8.9%). 환율 및 파업으로 인해 자동차/부품 업계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모비스의 안정적인 이익창출능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특히 대체부품인 중세 시행을 앞두고 우려가 컸던 AS부문의 수익성이 회복된 점은 고무적이다. 우리는 대체부품인중세가 시행되더라도 모비스의 AS부문 수익성의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AS부품 중 소모성(엔진오일 등), 기능성(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등) 부품은 이미 경쟁적인 시장이며 사고성(램프, 범퍼 등) 부품은 복잡해진 기술과 유통망으로 신규진입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Negatives: 뒤로 미뤄진 금융부문 손익분기점 돌파

금융부문의 손익분기점 돌파 시점이 늦춰질 전망이다. 4분기 금융부문 수익성은 -5.6%로 전분기보다 2.6%p 악화됐다. 예상보다 저금리가 길어지면서 역마진이 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판관비가 줄고 계약유지율이 높아지면서 올해 1분기에 BEP 도달을 예상했으나 4분기로 늦춰질 전망이다.

■ 결론: 펀더멘탈만으로도 충분히 좋다, 부품업종 최선호주 유지

현대모비스에 대해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360,000원을 유지한다(2011~2013년 평균 PER 8.5배 적용).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지배구조 개편을 감안하더라도 펀더멘탈만으로도 충분히 투자매력이 높다. 2015년에도 신모델과 친환경차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모듈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자동차부품업종 내 최선호주를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4Q14P				증감률		2015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9,777	9,842	0.7	9,646	15.8	7.0	38,642	38,314
영업이익	878	881	0.3	859	21.7	1.1	3,339	3,292
영업이익률	9.0	8.9		8.9			8.6	8.6
세전이익	1,314	1,153	(12.2)	-	11.8	(5.2)	5,043	-
순이익	1,025	823	(19.7)	945	7.0	(9.8)	3,933	3,790

*상기 보고서는 2015년 1월 2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위아(011210)

매수(유지)

목표가: 218,000원(유지)

종가(1/23): 158,500원

과민반응

■ What's new: 비용 증가로 컨센서스 17% 하회

현대위아 4분기 매출액은 1조 9,875억원으로(+12.4% QoQ, +12.1% YoY) 우리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각각 4.1%, 0.3% 상회했다. 영업이익은 1,234억원을 기록해(+0.4% QoQ, -15% YoY, OPM 6.2%)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각각 10.7%, 17% 하회했다. 매출은 완성차 생산호조와 손자회사였던 위스코(금속주조) 흡수합병으로 자동차부품부문이 (매출비중 80%) 예상보다 9.6% 많았다. 영업이익은 일괄 반영된 인건비 영향으로(임금인상분 약 70억원, 합병에 따른 퇴직금정산 약 80억원) 예상을 하회했다.

■ Positives: 합병으로 커진 외형

위스코 흡수합병으로 자동차부품부문의 외형이 커졌다. 위스코는 연간 3,568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회사다(2013년 기준, 위아 매출 대비 8.7%). 위스코와 동시에 흡수합병 한 메티아는 연결자회사였지만 위스코는 지분법대상회사였기 때문에 4분기에 외형증대효과가 발생했다. 합병기일이 2014년 11월 1일임을 감안하면 1분기에는 합병효과가 온전히 반영될 전망이다.

■ Negatives: 합병으로 수익성 하락

4분기 수익성은 우리 전망보다 1%p 낮았다. 인건비 일괄정산 비용이 0.8%p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위스코 합병으로 인한 효과가 0.2%p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건비 상승은 일회성으로 1분기부터는 영향이 없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위스코 합병은 향후에도 수익성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위스코의 영업이익률이 위아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매출 규모를 감안 시 위스코의 합병은 위아의 영업이익률을 0.3%p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

■ 결론: 장기성장성 이상무, 역사적 하단에 근접한 주가는 매수 적기

현대위아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18,000원을 유지한다(12MF EPS에 목표 PER 11배 적용, 과거 평균 PER 10배를 10% 할증).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최근 주가가 급락했으나 이는 대부분 일회성이고 위아의 장기성장성에는 이상이 없다. 2015년에 자동차부품 신규공장 가동이 줄줄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1분기 등속조인트, 2분기 부변속기, 하반기 소형엔진 및 터보차저) 기계부문도 완성차 공장 증설로(기아차 멕시코, 하반기 현대차 중국 4.5 공장) 3,667억원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2014년 기계매출의 27%). 과민반응으로 역사적 하단을 시험하고 있는 현재 주가는 매수할 적기다.

(단위: 십억원, %, %p)

	4Q14P				증감률		2015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910	1,987	4.1	1,981	12.4	12.1	9,011	8,442
영업이익	138	123	(10.7)	149	0.4	(15.0)	607	621
영업이익률	7.2	6.2		7.5			6.7	7.4
세전이익	156	153	(1.4)	-	8.8	1.5	654	-
순이익	121	108	(10.9)	119	0.1	(6.8)	510	502

*상기 보고서는 2015년 1월 2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LG유플러스(032640)

매수(유지)

목표가: 15,500원(상향)

종가(1/23): 12,750원

4분기 실적 호전, 15년에도 이어질 것

■ What's new : 4분기 영업실적은 예상치 상회

4분기 영업실적은 우리 예상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서비스 매출액(단말기 판매 제외)은 일회적인 수익 정산분(220억원) 반영과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로 예상치를 4% 상회했다. 영업이익은 1,906억원으로 우리의 예상치를 17.3% 상회했다. 아이폰6 출시로 우량 가입자 유치가 늘어 매출이 호조를 보였고 연말 접속료 조정으로 1~9월분(33억원)을 소급 적용한 데다 인건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9.2% 늘었으며 사상 최고의 과열 경쟁이 있었던 전년동기에 비해 52.6% 증가했다.

■ Positives : 15년 영업이익은 28.5% 증가 예상

4분기 이동통신 가입자당 매출액(ARPU)은 전분기 대비 3.6% 늘었고 일회적 수익 정산분(700원)을 제외해도 1.6% 증가했다. 아이폰6 신규 가입자 점유율이 30%에 달해 15년 가입자와 ARPU는 전년 대비 각각 2.5%, 3.7% 증가할 것이다. 15년 서비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 늘어 가이던스(8.65조원)에 부합할 전망이다. 매출 호조와 인건비 등 제반 비용 절감 등을 반영, 15년, 16년 순이익을 각각 5%, 7.8% 높여 추정한다. 15년 영업이익은 마케팅비용 감소로 전년 대비 28.5% 증가하고 순이익은 법인세율이 낮아져 78.5% 증가할 전망이다.

■ Negatives : 대리점에 대한 리베이트 경쟁 심화

단통법 시행 불구 가입자당 유치비용이 21% 늘어 마케팅비용이 전분기 대비 8.6% 증가했다. 대리점에 대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방통위는 과도한 리베이트가 불법보조금을 부추긴다고 보고 실태 조사에 나섰다. 정부 규제로 리베이트 경쟁이 완화되면 마케팅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 결론 : 매수의견과 목표주가를 15,500원으로 상향

매수의견을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수익 상향으로 13,800원에서 15,500원으로 높인다. 목표주가는 12MF EPS에 목표 PER 16.4배(과거 4년 평균을 8% 할인)를 적용해 산출했다. 매수 추천의 이유는 마케팅 경쟁력 우위 유지, 수익성 호전, 배당메리트 증가 등이다. 1) 아이폰6 수혜가 크다. 4분기에 번호이동시장에서 4.4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다. 2) 매출 호조와 단통법 효과로 마케팅비용이 줄어 15~16년 EPS는 연평균 50.1% 증가할 것이다. 3) 주당 배당금은 14년 150원에서 15년 260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4) 설비투자가 14년 2.2조원에서 15년에 1.7조원으로 줄어 가용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설 전망이다.

(단위: 십억원, %, %p)

	4Q14P				증감률		2015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740.1	2,683.7	(2.1)	2,779.7	(2.8)	(9.0)	10,621.3	11,336.2
영업이익	162.5	190.6	17.3	165.0	9.2	52.6	740.3	716.4
영업이익률	5.9	7.1	1.2	5.9	0.8	2.9	7.0	6.3
세전이익	105.4	118.9	12.8	NA	7.5	100.8	511.4	NA
순이익	84.3	85.3	1.2	89.3	3.9	77.2	406.6	389.2

*상기 보고서는 2015년 1월 2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송승연(seungyeon.song@truefriend.com) ☎ 02-3276-6273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9(월)	1/20(화)	1/21(수)	1/22(목)	1/23(금)	1/26(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02.62	1,918.31	1,921.23	1,920.82	1,936.09	1,935.68
	등락폭		14.49	15.69	2.92	-0.41	15.27	-0.41
	등락종목	상승(상한)	437(5)	465(10)	385(7)	391(7)	460(7)	406(11)
		하락(하한)	343(1)	344(0)	416(0)	393(0)	331(2)	405(1)
	ADR		94.33	99.44	96.03	94.87	96.17	93.68
	이격도	10 일	99.86	100.50	100.45	100.35	101.08	100.99
		20 일	99.24	100.01	100.18	100.22	101.02	101.03
	투자심리		50	60	6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281	281	301	343	363	327
	거래대금	(십억 원)	3,583	3,637	4,401	4,598	4,596	3,900
코스닥	코스닥지수		577.94	582.27	584.34	578.42	589.31	590.34
	등락폭		0.53	4.33	2.07	-5.92	10.89	1.03
	등락종목	상승(상한)	437(14)	465(13)	385(19)	391(13)	637(22)	487(20)
		하락(하한)	343(2)	344(2)	416(1)	393(2)	337(0)	498(1)
	ADR		109.33	115.46	110.95	107.65	112.74	110.94
	이격도	10 일	101.10	101.45	101.40	100.16	101.76	101.67
		20 일	103.95	104.21	104.13	102.69	104.12	103.81
	투자심리		50	60	6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441	486	538	647	500	520
	거래대금	(십억 원)	2,509	2,882	3,023	3,292	2,996	2,842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869.5	1,010.6	880.8	133.7	102.2	203.7	53.5	17.5	370.314
	매도	1,795.8	1,111.9	972.9	151.0	145.2	323.2	63.6	14.4	275.5
	순매수	73.7	-101.3	-92.1	-17.3	-43.0	-119.4	-10.1	3.0	94.8
	1월 누계	303.4	-712.0	-1,057.0	-734.1	32.7	-75.8	-231.3	43.4	-91.8
	15년 누계	303.4	-712.0	-1,057.0	-734.1	32.7	-75.8	-231.3	43.4	-91.8
코스닥	매수	2,566.6	125.2	157.0	34.6	22.3	51.8	6.8	3.6	37.8
	매도	2,526.9	150.0	162.1	41.0	15.7	57.4	10.5	4.1	33.5
	순매수	39.7	-24.8	-5.1	-6.4	6.6	-5.5	-3.7	-0.5	4.3
	1월 누계	-133.6	-89.1	417.2	11.0	111.5	138.8	1.6	11.7	142.7
	15년 누계	-133.6	-89.1	417.2	11.0	111.5	138.8	1.6	11.7	142.7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건설업	1,647
증권	1,529
전기가스업	1,309
현대차	9,258
현대모비스	3,971
삼성SDI	3,157
현대건설	2,693
SK C&C	2,235
유통업	-17,677
통신업	-16,759
화학	-15,606
KODEX 200	-12,982
삼성물산	-12,826
삼성전자	-12,506
SK텔레콤	-12,279
기아차	-9,579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41,495
서비스업	40,340
통신업	14,982
삼성전자	28,164
SK텔레콤	11,358
NAVER	10,957
SK C&C	10,538
현대모비스	10,421
운수장비	-26,163
전기가스업	-4,433
유통업	-4,323
기아차	-24,960
현대차	-11,696
삼성물산	-11,324
S-Oil	-3,406
현대EP	-3,11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2,443
전기,전자	1,216
철강및금속	869
기아차	2,147
두산	1,148
POSCO	884
삼성증권	620
TIGER 경기방어	593
서비스업	-3,037
비금속광물	-401
종이, 목재	-145
SK C&C	-4,113
KODEX 레버리지	-689
LG화학	-584
삼광글라스	-380
현대글로벌비스	-361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건설업	3,839
금융업	3,419
음식료품	2,282
KODEX 200	15,119
현대건설	3,060
신한지주	2,951
삼성SDI	2,497
현대모비스	2,268
운수장비	-17,470
철강및금속	-8,276
전기,전자	-7,218
기아차	-12,088
대한항공	-6,810
삼성전자	-5,950
LG	-5,693
현대차	-5,648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31,278
건설업	15,052
증권	10,592
현대모비스	24,792
KODEX 레버리지	18,035
현대건설	12,521
SK C&C	11,264
NAVER	10,175
SK하이닉스	8,511
신한지주	7,610
대우증권	5,738
아모레퍼시픽	5,445
기업은행	5,213
운수장비	-59,438
유통업	-34,597
철강및금속	-25,238
기아차	-60,481
삼성물산	-35,873
TIGER 원유선물(H)	-21,900
KODEX 인버스	-20,597
현대차	-18,004
POSCO	-14,402
대한항공	-9,965
하나금융지주	-9,403
현대제철	-8,430
현대글로벌비스	-8,320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금융업	25,648
유통업	21,344
통신업	14,797
SK텔레콤	18,721
삼성물산	17,996
KB금융	17,661
삼성SDI	16,037
LG전자	12,840
SK하이닉스	11,482
하나금융지주	10,494
현대글로벌비스	9,386
대한항공	6,831
롯데케미칼	6,359
운수장비	-130,128
전기,전자	-28,636
철강및금속	-8,387
삼성전자	-66,113
현대차	-48,133
기아차	-39,340
현대모비스	-25,366
NAVER	-13,258
현대차2우B	-8,114
삼성에스디에스	-7,999
삼성전자우	-6,309
삼성중공업	-6,306
LG생활건강	-6,14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2,851	소프트웨어	-1,246
계약	1,969	전문기술	-1,118
인터넷	608	방송서비스	-632
위메이드	3,339	CJ E&M	-1,639
메디톡스	3,014	유비벨록스	-1,262
ISC	1,210	드래곤플라이	-1,196
유니테스트	970	KG이니시스	-1,091
골프존	961	실리콘웍스	-706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7,366	계약	-2,667
출판,매체복제	1,106	방송서비스	-2,340
오락,문화	1,103	의료,정밀기기	-1,620
게임빌	3,452	메디톡스	-2,465
컴투스	2,743	CJ오쇼핑	-2,340
위메이드	1,277	에이블씨엔씨	-1,102
미디어플렉스	1,103	다음카카오	-1,012
KT뮤직	1,002	바이넥스	-1,00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488	IT부품	-267
전문기술	234	화학	-143
반도체	228	금융서비스	-128
게임빌	606	아트라스BX	-281
실리콘웍스	270	컴투스	-266
CJ E&M	182	메디톡스	-173
위메이드	151	디에이치피코리아	-153
CJ프레시웨이	151	KCI	-144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2,965	방송서비스	-1,643
디지털컨텐츠	1,855	기계,장비	-1,497
반도체	1,671	오락,문화	-950
다음카카오	2,981	CJ오쇼핑	-1,891
컴투스	1,463	제이브이엠	-1,418
오스템임플란트	1,084	제이콘텐트리	-768
디에이치피코리아	635	바이로메드	-637
삼성엘앤에스	490	바이넥스	-412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19,562	방송서비스	-6,462
인터넷	3,204	소프트웨어	-2,264
출판,매체복제	1,958	음식료,담배	-2,054
게임빌	8,413	CJ오쇼핑	-5,794
컴투스	8,230	CJ E&M	-2,546
위메이드	5,453	KG이니시스	-2,345
다음카카오	3,418	바이넥스	-2,078
오스템임플란트	1,777	유비벨록스	-1,455
KT뮤직	1,386	드래곤플라이	-1,391
토비스	1,335	SK브로드밴드	-1,312
에스엠	1,210	플렉스컴	-1,309
인바디	1,078	SBS콘텐츠허브	-1,305
씨젠	1,011	테스	-1,141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3,792	디지털컨텐츠	-8,552
금융서비스	2,405	계약	-3,628
도매	651	반도체	-3,606
게임빌	3,371	컴투스	-5,479
CJ오쇼핑	2,725	웹젠	-3,547
디에이치피코리아	1,669	위메이드	-2,802
휴맥스	1,122	KG이니시스	-1,834
GS홈쇼핑	1,053	인바디	-1,815
로엔	954	다음카카오	-1,784
조이시티	948	메디톡스	-1,586
코나아이	799	파라다이스	-1,330
토비스	789	미디어플렉스	-1,312
링네트	666	보성파워텍	-1,29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유니드	13 일	대한항공	13 일
LG하우시스	12 일	일성신약	12 일
코웨이	11 일	하나금융지주	9 일
아모레퍼시픽	11 일	동아타이어	8 일
KPX케미칼	9 일	LG화학	8 일
KODEX Japan	9 일	TIGER 200	8 일
대상	8 일	삼성물산	7 일
에스원	8 일	한화	7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위메이드	10 일	매일유업	10 일
메가스터디	9 일	KTH	6 일
이트레이드증권	9 일	SBS콘텐츠허브	6 일
토타	6 일	에이테크솔루션	6 일
오스템임플란트	5 일	비에이치아이	6 일
시그네텍스	4 일	동국산업	5 일
파라다이스	4 일	아미노로직스	5 일
심텍	4 일	아트라스BX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314,577	TIGER 200	103,208
삼성전자	110,048	한국전력	86,612
현대모비스	91,017	LG화학	70,171
SK이노베이션	33,381	SK텔레콤	55,543
대우조선해양	30,461	삼성물산	54,893
아모레퍼시픽	30,159	하나금융지주	46,838
삼성SDI	28,130	LG전자	45,809
현대건설	25,891	KB금융	43,714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다음카카오	29,431	이오테크닉스	7,027
위메이드	28,313	게임빌	5,807
게임빌	24,346	셀트리온	5,078
오스템임플란트	9,281	다음카카오	4,984
토비스	8,591	CJ오쇼핑	4,485
솔브레인	7,902	파라다이스	3,726
액토즈소프트	7,390	KH바텍	3,683
서울반도체	7,150	보성파워텍	3,432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섬유, 의복	3,150	1,422	4,572
기계	392	1,508	1,900
SK하이닉스	8,511	11,482	19,993
삼성SDI	1,600	16,037	17,637
LG전자	1,383	12,840	14,223
신한지주	7,610	2,444	10,053
엔씨소프트	4,566	3,215	7,781
SK	242	5,078	5,320
제일모직	3,197	1,242	4,439
대상	3,181	1,209	4,390
SK이노베이션	2,698	1,629	4,328
코웨이	3,297	858	4,155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출판, 매체 복제	1,958	235	2,193
정보기기	1,193	588	1,780
종이, 목재	598	60	658
게임빌	8,413	3,371	11,784
토비스	1,335	789	2,123
로엔	751	954	1,705
KT뮤직	1,386	35	1,421
유니테스트	972	105	1,077
코나아이	250	799	1,049
인터플렉스	482	455	937
네패스	372	501	873
마크로젠	292	314	606
셀트리온	12	567	579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TIGER 원유선물(H)	43 일	삼성엔지니어링	20 일
하나금융지주	24 일	에스원	16 일
대림산업	17 일	SK네트웍스	15 일
KT	14 일	대한제강	14 일
기아차	11 일	대우조선해양	13 일
POSCO	11 일	GS건설	12 일
고려제강	10 일	팬오션	12 일
동아타이어	10 일	대덕GDS	11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이테크솔루션	44 일	오스템임플란트	18 일
STS반도체	7 일	메가스터디	13 일
동국산업	6 일	SK브로드밴드	11 일
태광	6 일	한진피앤씨	8 일
SBS콘텐츠허브	6 일	유진기업	6 일
CJ오쇼핑	4 일	심텍	6 일
에이블씨엔씨	4 일	태광	5 일
GS홈쇼핑	3 일	성광벤드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기아차	-181,362	삼성전자	-247,939
현대차	-126,808	기아차	-85,331
TIGER 200	-102,317	NAVER	-34,824
삼성물산	-79,362	현대차	-31,618
현대위아	-67,523	대우조선해양	-29,775
TIGER 원유선물(H)	-56,767	삼성전자우	-28,880
KODEX 인버스	-46,341	GS건설	-26,430
KT	-46,223	기업은행	-23,733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오쇼핑	-19,345	KG이니시스	-13,160
KH바텍	-8,291	솔브레인	-5,939
KG이니시스	-5,504	오스템임플란트	-5,043
이오테크닉스	-5,451	에스엠	-3,921
SBS콘텐츠허브	-3,995	KG모빌리언스	-3,112
OCI머티리얼즈	-2,968	인바디	-2,787
코오롱생명과학	-2,958	한국사이버결제	-2,737
셀트리온	-1,594	웹젠	-2,289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59,438	-130,128	-189,566
철강및금속	-25,238	-8,387	-33,625
제조업	-2,874	-7,520	-10,393
기아차	-60,481	-39,340	-99,821
삼성전자	-4,141	-66,113	-70,254
현대차	-18,004	-48,133	-66,137
POSCO	-14,402	-5,048	-19,450
현대제철	-8,430	-5,184	-13,614
삼성에스디에스	-1,860	-7,999	-9,860
LG	-5,733	-3,605	-9,337
현대차2우B	-1,006	-8,114	-9,120
삼성전자우	-2,030	-6,309	-8,340
삼성중공업	-1,552	-6,306	-7,858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1,361	-3,628	-4,989
소프트웨어	-2,264	-2,251	-4,516
오락,문화	-178	-2,713	-2,891
KG이니시스	-2,345	-1,834	-4,178
CJ E&M	-2,546	-189	-2,735
SK브로드밴드	-1,312	-446	-1,758
서울반도체	-643	-1,038	-1,681
플렉스컴	-1,309	-26	-1,335
보성파워텍	0	-1,298	-1,299
휴온스	-209	-1,022	-1,231
엠게임	-269	-831	-1,100
바이오랜드	-138	-910	-1,047
성우하이텍	-595	-431	-1,026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9	12,700	
현대중공업	104	10,800	
삼성엔지니어링	350	10,424	
제일모직	70	9,126	
롯데케미칼	55	8,871	
LG화학	41	8,015	
삼성중공업	432	7,942	
기아차	156	7,70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다음카카오	10	1,542	
KH바텍	34	1,430	
GS홈쇼핑	7	1,254	
서울반도체	50	1,049	
컴투스	5	963	
차바이오텍	67	952	
한국사이버결제	26	875	
위메이드	18	874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573	6,338,274	
POSCO	4,836	1,332,433	
SK하이닉스	23,152	1,099,738	
현대중공업	10,405	1,071,704	
현대차	5,335	896,290	
KODEX 200	32,240	815,199	
신한지주	14,714	670,225	
호텔신라	6,125	640,06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다음카카오	5,325	829,595	
셀트리온	16,993	686,520	
CJ E&M	605	551,342	
파라다이스	10,215	262,527	
컴투스	1,306	254,235	
서울반도체	11,995	253,095	
위메이드	1,384	246,144	
이오테크닉스	874	116,634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 O S P I			
순 증		순 감	
보험	4,382	증권	-1,598
운수장비	4,057	의료정밀	-1,120
서비스업	3,385	금융업	-1,092
한화생명	3,718	KODEX 200	-2,845
대우조선해양	1,568	미래산업	-1,125
삼성엔지니어링	1,243	하나금융지주	-1,093
기업은행	1,217	유안타증권	-922
삼성중공업	887	슈넬생명과학	-867
SK네트웍스	855	한진해운	-863
우리금융	795	LG디스플레이	-798
한진중공업	743	KB금융	-791
SH에너지화학	709	한화케미칼	-719
삼익약기	645	LG전자	-674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순 증		순 감	
반도체	1,375	운송장비,부품	-282
IT부품	1,340	섬유,의류	-282
통신장비	1,061	일반전기전자	-270
심텍	507	STS반도체	-432
이지바이오	365	하림	-413
다우데이터	362	파트론	-344
미디어플렉스	357	웰크론	-254
우리이티아이	355	바른손이앤에이	-193
테스	350	보성파워텍	-192
코나아이	324	차이나그레이트	-169
알에프텍	311	인터파크	-163
원익IPS	303	국제디와이	-142
차바이오텍	280	씨앤케이인터	-129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20(화)	1/21(수)	1/22(목)	1/23(금)	1/26(월)
외국인	-609.6	-609.6	238.0	32.0	70.4	61.5	98.7	-101.3
기관계	-965.7	-965.7	-11.1	170.5	-158.7	-89.3	-95.5	-92.1
(투신)	42.8	42.8	-92.1	-8.6	-3.0	-34.2	-85.1	-119.4
(연기금)	-87.6	-87.6	-117.7	3.2	-77.8	-90.9	5.4	99.7
(은행)	40.4	40.4	15.2	8.3	1.4	4.4	-6.2	3.0
(보험)	75.7	75.7	-1.4	33.7	-22.4	-22.7	-0.8	-43.0
개인	228.2	228.2	-564.2	-211.2	-11.4	-86.3	-110.1	73.7
기타	1,347.1	1,347.1	337.3	8.7	99.7	114.2	106.9	119.7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1/19(월)	1/20(화)	1/21(수)	1/22(목)	1/23(금)
KOSPI	1,825.7	1,997.1	2,011.3	1,902.6	1,918.3	1,921.2	1,920.8	1,936.1
고객예탁금	17,680.2	18,014.3	14,211.8	15,659.9	15,148.4	15,526.2	15,498.2	15,729.1
(증감액)	1,996.5	3,611.7	334.1	-51.9	-511.5	377.8	-28.0	230.9
(회전율)	34.2	26.7	29.9	38.9	43.0	47.8	50.9	48.8
실질예탁금 증감	-3,314.4	3,791.6	-13,274.3	-89.1	-247.9	292.4	-269.9	191.2
신용잔고	44,763.0	39,124.0	41,828.0	5,316.8	5,344.2	5,359.3	5,389.4	5,414.2
미수금	1,877.0	1,241.0	929.0	137.5	150.6	148.1	132.2	138.9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19(월)	1/20(화)	1/21(수)	1/22(목)	1/23(금)
전체 주식형	79,774	168	168	0	102	-14	198	67
(ex. ETF)		-275	-275	-26	-17	-16	-35	-39
국내 주식형	64,056	486	486	48	109	9	199	74
(ex. ETF)		37	37	22	-10	5	-34	-31
해외 주식형	15,719	-318	-318	-48	-7	-23	-1	-8
(ex. ETF)		-312	-312	-48	-7	-21	-1	-8
주식 혼합형	10,377	-91	-91	-13	-10	4	-12	-36
채권 혼합형	27,918	494	494	101	69	25	16	43
채권형	71,348	569	569	30	180	-22	79	68
MMF	98,627	16,231	16,231	0	163	-1,085	-137	-81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20(화)	1/21(수)	1/22(목)	1/23(금)	1/26(월)
한 국	-563	-563	2,363	29	65	57	92	-101
대 만	426	426	2,143	271	547	380	681	-
인 도	782	782	662	213	346	107	-	-
인도네시아	-231	-231	35	-27	17	-20	129	-
태 국	-519	-519	121	-25	25	43	101	-
남아공	-198	-198	109	-64	117	-5	-	-
필리핀	491	491	129	-6	48	80	19	-7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4	1/19(월)	1/20(화)	1/21(수)	1/22(목)	1/23(금)	1/26(월)
회사채 (AA-)	2.43	2.36	2.35	2.36	2.30	2.33	2.32
회사채 (BBB-)	8.26	8.21	8.20	8.21	8.23	8.19	8.19
국고채 (3년)	2.10	2.04	2.03	2.05	2.06	2.03	2.02
국고채 (5년)	2.28	2.13	2.12	2.15	2.18	2.13	2.11
국고채 (10년)	2.60	2.39	2.36	2.37	2.41	2.33	2.30
미 국채 (10년)	2.20	1.84	1.79	1.87	1.86	1.80	-
일 국채 (10년)	0.33	0.20	0.22	0.25	0.32	0.23	-
원/달러	1,099.30	1,078.00	1,088.40	1,083.40	1,084.90	1,084.10	1,080.80
원/엔	920.30	918.31	918.33	922.28	925.05	919.98	916.40
엔/달러	119.45	117.39	118.52	117.47	117.28	117.84	117.94
달러/유로	1.22	1.16	1.16	1.16	1.15	1.12	1.12
DDR3 1Gb (1333MHz)	1.34	1.33	1.33	1.32	1.32	1.32	-
DDR3 2Gb (1333MHz)	2.21	2.21	2.21	2.21	2.21	2.21	-
NAND Flash 16Gb (MLC)	2.18	2.14	2.14	2.14	2.14	2.14	-
CRB 지수	233.24	224.79	219.51	221.78	218.88	216.61	-
LME 지수	2,907.6	2,727.6	2,752.5	2,789.8	2,757.9	2,693.2	-
BDI	782	739	753	770	751	720	-
유가 (WTI, 달러/배럴)	53.61	48.69	46.39	47.78	46.31	45.59	-
금 (달러/온스)	1,185.50	1,273.75	1,288.75	1,293.50	1,295.75	1,294.7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9	20	21	22	23
日> 11월 최종 광공업생산 MoM (-0.5%, n/a, -0.6%)	美> Powell 연준이사 연설 中> 12월 4분기 GDP (7.3%, 7.2%, 7.3%) 12월 소매판매 YoY (11.9%, 11.7%, 11.7%) 12월 광공업생산 YoY (7.9%, 7.4%, 7.2%) 독일> 1월 ZEW 서베이 예상 (48.4, 40.0, 34.9)	美> 12월 주택착공건수(만채) (108.9, 104.0, 104.3) 日> 일본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美> 1월 예비 제조업 PMI (53.7, 54.0, 53.9)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中> 1월 예비 제조업 PMI (49.8, 49.5, 49.6) 독일> 1월 예비 제조업 PMI (51.0, 51.7, 51.2)	美> 12월 기존주택매매(만채) (504, 508, 492) 12월 선행지수 (0.5%, 0.4%, 0.4%) 유럽> 1월 예비 제조업 PMI (51.0, 51.0, 50.6) 1월 예비 소비자 기대지수 (-8.5, -10.5, -10.9)
26	27	28	29	30
그리스총선(25일) 실적발표> 韓 LG화학, 삼성테크윈 美 마이크로소프트	美> 12월 내구재주문 (n/a, 0.5%, -0.9%) 12월 신규주택매매 (n/a, 45.0만, 43.8만) 1월 소비자기대지수 (n/a, 95.0, 92.6) 실적발표> 韓 LG전자, LG이노텍 美 텍사스인스트루먼트, 코닝, 듀폰, 화이자, P&G, 록히드마틴, AT&T, US스틸, 암젠, 애플, EA, 야후, 3M	美> FOMC 통화정책회의 (n/a, 0.25%, 0.25%) 실적발표> 韓 SK하이닉스, 넥센타이어, LG디스플레이 美 보잉, ADT	유럽> 12월 M3 통화공급 (n/a, 3.5%, 3.1%) 1월 최종 소비자 기대지수 (n/a, n/a, -8.5) 독일> 1월 예비 소비자물가지수 (n/a, -0.2%, 0.1%) 실적발표> 韓 삼성전자, NAVER, SK텔레콤, 이마트, LG상사 美 퀄컴, 페이스북, 다우케미컬, 허쉬, 블랙스톤, 타임워너케이블, 포드, 아마존, 구글, 비자, 비아콤	美> 4분기 예비 GDP 연간화 QoQ (n/a, 3.0%, 5.0%) 1월 최종 미시간대 기대지수 (n/a, 98.2, 98.2) 유럽> 1월 예상 소비자 물가지수 (n/a, -0.4%, -0.2%) 日> 12월 전국소비자물가지수 YoY (n/a, 2.3%, 2.4%) 12월 예비 광공업생산 MoM (n/a, 1.3%, -0.5%) 실적발표> 韓 현대글로비스, 삼성전기, 한국타이어, KT(31일), SK브로드밴드(31일) 美 제록스, 세브론, 마스터카드
2/2	3	4	5	6
韓> 1월 수출 YoY (1일) 1월 수입 YoY (1일) 中>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1일) HSBC 제조업 PMI 美> 12월 개인소득 12월 개인소비지수 1월 ISM 제조업지수	韓> 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日> 1월 본원통화 YoY 美> Kocherlakota 연준이사 연설 12월 제조업수주	美> Mester 연준이사 연설 1월 ADP취업자 변동 유럽> 12월 소매판매 MoM	독일> 12월 공장수주 MoM 美> 12월 무역수지	독일> 12월 산업생산 MoM 美> 실업률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